

금호타이어, F3에 타이어 공급 3년 연장

금호타이어가 F3 유로시리즈의 공식타이어 공급기업으로 재 선정됐다.

금호타이어는 독일 오펜바흐 소재 유럽본부에서 발터 메아티스(Walter Mertes) F3 유로시리즈 조직위원장과 2009-11년에 걸쳐 공식 타이어를 공급하는 조인식을 열었다.



금호타이어는 2003-08년 동안 F3 유로시리즈에 타이어를 공급한 바 있다.

F3 유로시리즈는 2003년 독일 F3와 프랑스 F3를 통합한 대회로 2009년에는는 5월 17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 5개국을 순회하며 총 32대의 자동차가 참가해 우승을 다투게 된다.

공식타이어 공급기업으로 재선정된 금호타이어는 연평균 1만개의 경기용 타이어를 유상 공급함으로써 모터스포츠의 본거지인

유럽 프리미엄 타이어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 상승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세계 최대 규모인 F3 유로시리즈 이외에도 마스터즈 F3, 오스트레일리아 F3의 공식 타이어 공급기업로 지정돼있다.

<화학저널 2009/02/20>